

2005년에 실시한 제 4회 김영인 문예공모에서 수필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수필작과 시 부문 등마치 글 좋은 평을 받은 시 한 편을 실었다. 2005년 문예공모전은 www.posi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내안에 갇힌 나를 자유롭게(2)

— 글 : 윤 천 주 · 김영인 기명



처음 이곳에서 또한 격리수용이 무엇임을 증명이라도 시켜주듯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했다.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는 동안 나는 나름의 생존 방법을 터득했고, 내 병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선입견에 당당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행해지는 부당한 처우들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고 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고 범법행위와도 같은 처우를 하는 교도소 측에 책임을 따졌으며 그때서야 바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타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종교집회 참석마저 통제받으며 느껴야 했던 비참함, 뿌리 깊은 선입견으로 중무장한 교도관들로 인해 수도 없이 겪어야 했던 인격모독 등의 수없이 많은 힘겨움들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삶에 발버둥치는 동안 어느 틈엔가 나는 다시금 삶에 애착을 갖게 됐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캄캄한 어둠 밤에 태양보다 훨씬 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조그만 달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듯이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도 돋보인다. 삶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다. 좌절도 고통도 없는 환한 태양이 비추어는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때에는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기에 비현실적인 세계를 소원하는 꿈은 가질 필요도 없고 달빛 같은 조그만 빛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실패와 좌절이 있는 삶에는 작은 빛도 희망이 되고 소중한다.

비참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억눌리고 눈물 흘리는 동안 그 틈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다시금 희망을 품게 한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미소로 눈인사를 건네는 버릇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다. 이미 발가벗겨진 채 치부를 들어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겉모습만이라도 아파보이고 싶지 않았고 암울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쌓여 어수근거림과 손가락질로 나를 대하던 사람들도 차츰 나의 존재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내 존재를 한 묶음으로 인식해갈쯤 조심스럽게나마

내게 말을 건네려 하고 위안을 주려 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됐고 난 다시 아주 잠깐씩이나마 억지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곳 또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다. 일반 감염인들 또한 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로 고통 받고 힘들어 하겠지만 지금 이곳의 현실에 처한 나와 같은 감염인에 비하면 일반 감염인들의 힘겨움들은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감히 나는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한번 내보인 치부는 다시는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곳은 내 의지가 허락치 않는 그런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생존법칙과 함께 깨닫고 느끼고 얻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겪어야 했던, 또한 앞으로 겪게 될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상대의 입장이었다면 그러했을 테니까. 나는 이곳에서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변해야만 날 손가락질하고 날 천대하던 이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자꾸만 피하려만 하고 숨으려 든다면 평생을 숨어 다닌다 한들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이곳에서 겪으며 느끼고 깨닫지 못했다면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맸을 것이다. 원치 않는 환경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한 현실에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죄인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지금에 머무는 동안 나는 큰 것을 얻었다. 에이즈란 병은 내안의 수치심으로 인해 더욱 나 자신을 자책하고 왜곡하게 하는 나로 인해, 작은 발길짓 하나에도 크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나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육신을 비록 창살 안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서 비로소 내안에 갇힌 나를 석방시킬 수 있었다. 내안에 갇힌 나를 자유로이 놓아준다면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내가 에이즈 감염인임을 모두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기보다는 내게 와서 스스로없이 에이즈에 대해 묻는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 이틀 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고 비감염인들의 선입견이 따뜻한 시선으로 변화되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다가는 그사이 이미 우리는 지쳐 쓰러진 뒤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라. 하루 이틀 사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씨앗 또한 흙에 뿌리지고 물과 거름으로 다져지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리듯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 또한 그런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세상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 웃을 거리를 찾는 사람은 남을 위해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 여유를 얻지 못함으로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고. 나 자신을 위해 내보인 억지웃음이 한순간 가식 없는 미소로 따뜻함을 줄 때 비로소 그 미소를 대하는 이들 또한 행복한 미소로 답해줄 거라 나는 자신한다.

나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몬 죄값으로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제 시작의 길목에서 조금의 깨달음으로 앞으로의 내 삶에 초석을 놓았을 뿐이지만 난 아주 큰 것을 얻은 거라 자신한다. 처한 현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여건은 아니었지만 내안에 나로 인해 고통받는 아픔만은 다 같은 거라 생각한다.

지금 내 주위의 비감염인들은 내게 말한다. "곧 치료제 나올 거야. 알지? 힘내." 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 나는 그동안의 힘겨움들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함께 대화를 하다가도 가까이 오지 말라며 나를 멀리 하는,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감기 옮으면 안 된다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비록 나는 발가벗고 있지만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다. 나를 위해 함께 베풀어주는 따뜻한 이들이 있으니까. <끝>